



# 光州日報



## 광주·전남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자금없이 신기술 死藏

(사장)

### 바이오농자재 상용화 앞두고 실험 중단 200만달러 수출수주 받고도 양산 못해

에완용사료 제조업체 유니바이오(광주대 창업보육센터) 오도건 대표는 요즘 3억여원의 운전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나중에 있는 생산공장의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 운전자금을 융통하려고 금융기관 문턱을 수없이 들락거렸으나 매번 헛걸음했다. 마케팅자금마저 동나 시장규모가 큰 수도권 공략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 대표는 "현재 양계장 약취를 없애주는 신제품 사료, 기능성 달걀 등 신제품을 개발중이지만 자금부족으로 제품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24개 창업보육센터 내 대다수 입주업체들이 신기술·제품을 개발해놓고도 운전자금이나 마케팅자금이 없어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장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제품화시키지 못해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진 아이디어들도 부지기수라는

계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얘기가. '차량선팅 가시광선 투과를 측정기'를 개발한 벤처TNI(광주과기원 창업보육센터·대표 김광웅)는 일본·말레이시아 등지로부터 200만달러 규모의 수주 타진을 받았다. 그러나 자금부족으로 양산라인 증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광웅 대표는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자칫 수출건이 물거품 될 수도 있다"면서 "또 휴대가 간편하고 일본제품보다 기능이 훨씬 우수한 측정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으나 아직 착수도 못했다"고 한숨을 지었다.

게르마늄비료 '지플러스알파'를 생산하는 캐러스(광주과기원 창업보육센터·대표 김봉수) 역시 설비부족과 원자재 구입자금이 모자라 성수기인 봄철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김봉수 대표는 또 "생분해성 제조제 개발에 성공했으나 상용화를 위한 생산설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2억여

원의 연구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추가 실험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남과대학 정상원 창업보육센터장은 "대다수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의 경우 담보가 거의 소진돼 정부차원에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대출이 힘들다"면서 "금융기관이나 지자체, 신용보증기금 등이 기술가치와 성장가능성으로 평가, 신용대출을 대폭 늘려야 입주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24개 창업보육센터 내에 417개(벤처 8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는 전국 274개, 4천 298개 업체의 10%에 달한다.

417개 업체의 고용인원은 1천526명이며, 지난해 특허출원건수는 169건에 이른다. 매출액은 848억1천만원으로 2004년보다 37% 늘었으나, 업체당 평균 2억원을 겨우 웃돌고 있어 열악한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중기청의 창업보육센터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사무실과 각종 제작·사무기기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지원, 창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부처님 진신사리 보러오세요”

24일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열린 미륵불상 심장전(心藏殿)을 찾은 불교신자와 관람객들이 부처님과 제자들의 사리를 친견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와 제자 사리 1천 과(顆)를 전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5월14일까지 계속된다. 원 안은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사리.

## 北, DJ 6월 방북 수용

### 남북 장관급회담...남북자·포로문제 협력 합의

북측이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6월 방북을 수용했다.

평양에서 24일 끝난 제 1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김 전 대통령의 6월중 방북 의사를 북측에 전달한데 대해 북측은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남북 수석대표인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장관은 북측 대표단과의 종결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 '김

전 대통령이 6월 중 방북을 제의했다'는 점을 다시 전했고 이번엔 (북측이)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구체적인 날짜와 일정, 방북단 규모, 절차에 대해선 곧 실무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5일로 6.15 공동선언 6돌을 맞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6월 15일 이전인 6월 10일을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과 북은 이와함께 국군포로 및 남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또 북핵문제와 관련, 9·19공공성명이 조속히 이행돼 핵 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남북은 제19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종결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 8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鄭회장 비자금조성 연루 추궁

檢, 관련자 주내 사법처리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4일 출두한 정몽구

회장이 그룹 전반의 비리를 주도한 정황을 잡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관련기사 3·11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5분 검찰청

사에 출두한 정 회장을 상대로 현대차와 글로벌 등 계열사들을 통한 약 1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부채 탐감 로비 등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동진 현대차 총괄부회장과 채양기 기획총괄본부장도 정 회장과 동시에 소환해 조사했다.

/최권익기자 cki@

## 환율 940원선 붕괴

1달러=939.8원 8년6개월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선진7개국(G7) 성명서 여파로 930원대로 추락하며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전 주말보다 8.80원 급락한 939.8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97년 10월27일 이후 처음으로 930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97년 10

월24일 929.50원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엔화 강세 여파로 전주말보다 6.60원 하락한 942.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역내의 매도 급증으로 937.00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환율은 저가인식 매수 유입으로 낙폭을 줄이며 942.30원까지 올랐으나 기업매도가 증가하며 손절매도

가 재현되자 930원대로 되밀렸다.

<관련기사 11면>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G7 재무장관 회담후 발표된 성명서 충격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고 전했다. 지난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G7 재무회담 직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환율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성명서가 발표되자 앞다투어 달러 버리기에 나섰다. 엔·달러 환율은 전 주말 2엔 가까이 급락한 115엔대로 떨어지며 원·달러 하락을 촉발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홈페이지: www.kwangju.co.kr ▶문의: (062)220-0541, 222-8111

후원학원 장학50% 학사원 조영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생원전화: (062)91-4114 ▶T: (062)91-4201-9  
새로 찾아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생원전화: (062)3531 ▶T: (061)360-3000

Welcometo Adelium

100만평의 바다와 10만평의 공원의 주인을 모십니다!

5월 중 모델하우스 도면제출

문의: 061-282-0400